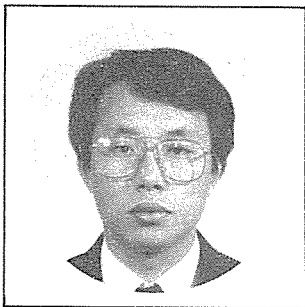


訪韓 노벨상 受賞者동행기

해마다 10월이 되면 세계인의 눈과 귀는 스웨덴과 노르웨이로 쏠린다. 평화, 의학, 물리, 화학, 문학, 경제학 등 6개 분야의 노벨상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금세기와 더불어 시작된 노벨상은 89년의 역사에서 모두 5백명의 개인과 13개 단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40개국에서 수상자들이 배출됐고 공산권 국가들도 蘇聯, 폴란드 등 6개국에 이른다. 여기에 韓國은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다. 「노벨상 콤플렉스」가 상기되는 10월인 것이다.

賞을 目標로 研究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근본을 추구하는 자세가 바람직



蔡明植

〈韓國經濟신문 科學技術部 記者〉

이들 역대 수상자들 가운데 11명이 韓國經濟新聞社와 韓國放送公社(KBS)의 초청으로 동시에 이 나라를 방문했다. 유례가 없는 일이다. 「노벨상 수상자 서울심포지움」이라는 題下에 모여든 이들 수상자들은 국내 학계에서도 증언하듯이 단 한명의 수상자를 초청하는데도 2~3년이 걸릴 만큼 바쁜 사람들이다. 2백5명으로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美國의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 2명 이상의 수상자가 한꺼번에 같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것을 금할 정도로 보호되고 있다고도 한다.

이들 碩學들은 韓國에서 보낸 1주일의 여정을 통해 아침 저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인류의 장래를 토의하고 그 장래를 이끌어갈 韓國의 젊은 科學英才들을 만나 대화하기도 했다. 韓國科學의 발전방향을 묻는 記者들의 질문에서 부터 과학자의 자질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어느 과학도들의 물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성의

科學에 관한 올바른 전달을 통한 公衆의 이해향상과 이들의 과학일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발전의 필수요건 이라고... 왜냐하면 과학정책에 관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公衆이기 때문이다.

것 대답했다. 浦項제철의 종합생산관제센터를 둘러보고 우주왕복선 발사대같다며 경탄하는가 하면 新羅의 千年古都 慶州를 방문, 韓國文化의 뿌리를 가름해 보기도 했다.

浦項과 서울을 오가며 이들을 소위 밀착취제한 필자는 수상자들 각자가 토론주제가 무엇이든 비교적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들의 얘기를 취재후기로 간추려 본다.

조지 포터卿(英國·1967년 화학상)은 한때 英國왕립한림원(The Royal Society)의 원장을 지내기도 한 거물이며 지난 1988년 韓國과학재단의 초청으로 잠시 來韓, 과학재단과 상호 과학인력의 교류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방에서 필자를 만난 그는 최근 런던타임즈의 과학기사가 잘못된 것을 예로들며 과학에 대한 올바른 전달을 통한 公衆의 이해 향상을 역설했다. 조지卿은 현재 英國왕립한림원 산하 과학이해증진위원회의 일을 맡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오존층 파괴, 지구 온실효과 등 중요한 과학 이슈가 떠오를 때마다 言論에 이를 브리핑함으로써 公衆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한다.

그는 결국 과학정책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公衆이므로 이들의 과학일반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학발전의 필수라고 강조했다.

허버트 브라운 박사(美國·1979년 화학상)는 대부분의 노벨상 수상자들이 수상이후 자신의 연구분야를 바꾸거나 아예 중단하는 것에 반해 수상후에도 1년에 약 30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정력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자상한 시골의 할아버지같은 인상을 풍기지만 요사이 젊은이들이 너무 편한 것만 찾는다며 질책할 때에는 무척 강직해 보인다. 그는 특

히 노벨상을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상을 목표로 연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며 제일 먼저 썰기를 박기도 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브라운박사는 지금까지 8명의 코리언 퀘밀리라 불리는 韓國제자들을 길러냈는데, 이 가운데 2명이 韓國화학회장을 지내는 등 우리나라 화학발전에 간접적으로 공헌했으며 韓國방문도 이번이 4번째로 수상자들 가운데 가장 知韓派이다.

커다란 체구에 학창시절에 미식축구등 각종 스포츠를 즐겼다는 더들리 허쉬바흐교수(美國·1986년 화학상)는 『우리가 만약에 너무 조심성이 많아서 우리의 가시거리내에서 당연히 길인 듯한 경로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평생 정상에 오르는 길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며 과학인의 정신을 스포츠 정신과 연결, 강조했다.

그는 또 최첨단에서의 과학연구는 추측에 근거하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모르고, 직관과 본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창조적이고도 예술적인면을 가지고 있는, 마치 탐험과도 같은 행위로 과학을 풀이했다.

허쉬바흐교수는 『대학 1학년에게 가르치는 일반화학의 교과목에서 오히려 가장 많이 배우고 있다』며 근본을 추구하는 과학자의 자세를 잊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라이언 조셉슨박사(英國·1973년 물리학상)는 33세의 나이로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천재. 그의 연구업적인 초전도체의 터널현상은 그가 연구를 이룩한 20대 초반이후로 과학계에서 무시를 당하는 등 英國학계의 이방인이 되어 왔으나 노벨상이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조셉슨박사는 과학에는 의식의 세계가 不在하다고 보고 지난 15년간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을 방문한 노벨상 수상자들의 모습.

떠나 영적 접근방법에 의한 진리의 모색을 위해 그쪽분야에 몰두해 왔다고 밝혔다.

방한중 조셉슨박사는 고개를 좌우로 내젓는 걸음걸이, 약간 더듬는 특유의 느린 말투등으로 취재기자들의 관심을 모았는데, 이것이 과연 天才性의 일부인지는 의문.

대니얼 가이듀세크박사(美國·1976년 의학상)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韓國형 출혈열의 원인인 한탄바이러스 연구에도 참여하는 등 비교적 韓國을 잘 아는 사람으로 그의 전문분야인 바이러스 연구와 깊이 관련된 AIDS(후천성 면역결핍증)가 공개회의에 올랐을 때에는 장내를 시종 압도하며 열변을 토하기도 했다.

그는 AIDS의 예방은 인간의 성행위를 보다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는데 현재 美國에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성토했기도. 그

러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자들이 그 나라의 사회문화를 깊이 있게 연구해 이러한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全社會的 예방노력을 강조했다.

이번 來韓한 수상자들 가운데 紅一點이며 최고령자이기도 한 리타 레비 몬탈치니박사(이태리·1986년 의학상)는 다른 수상자들이 한두개의 일정을 빠뜨리는 것과는 달리 누구에도 모든 일정을 시종 미소를 잃지 않고 참석해 관계자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몬탈치니박사는 그녀가 개척한 신경학 분야가 섬세한 여성들에게 적합한 학문이라며 韓國 여학생들에게 권유하기도 했는데, 특히 DNA나 선구조를 발견한 클릭이 우주를 이해하려면 이를 이해하는 도구인 우리 두뇌를 먼저 연구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인간 두뇌활동 연구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과학자의 첫째 조건은 유머감각이라고 말한

“
 우리의 동량들도 科學人의 자로서 충분한 창의적 역량과 자질이 있음
 을 그들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주었으며, 또한 우리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우리의 교육 현실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의의가 있다.
 ”

이바르 지에베박사(美國·1973년 물리학상)는 그가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母國인 노르웨이에서는 브리지 잘 하고 당구 잘 치는 지에베가 상을 받는다고 놀라와 했다고.

처음 엔지니어로 출발했다가 물리학을 하게 된 그는 과학자는 자신의 흥미를 따라 연구하는 것이라며 요즈음은 생물학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지에베박사는 또 韓國의 학생들이 너무 입시에 시달린다고 들었다며 이는 지양되어야 하며 공부하는 대학에서 맹렬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자신의 대학성적이 나쁜 이유를 묻는 記者들의 질문에는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엔지니어가 공부를 잘 할 필요는 없었다고 변명.

셀던 리 글래쇼박사(美國·1979년 물리학상)는 방한중 한가지 흥미로운 제안을 했는데, 이는 현재 蘇聯에서 발간되고 있는 과학잡지인 「크란트」를 번역해서 韓國학생들에게 읽게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다. 美하버드大 교수가 蘇聯잡지를 권해 의아함을 샀는데, 알고보니 이 잡지에는 재미있는 과학퀴즈가 연재돼 현재 蘇聯의 대부분 저명한 물리학자들은 이를 통해 과학의 흥미를 키웠다고. 글래쇼교수는 현재 이 잡지가 美國에서도 번역되어 어린이들에게 읽히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

글래쇼교수는 韓國인들의 노벨상 콤플렉스를 달래기라도 하듯 자주 벤자민 리(李輝詔)박사를 언급하며 그가 10년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틀림없이 노벨상을 탔었을 것이라고 위로하기도 했다.

버튼 리히터박사(美國·1976년 물리학상)는 그 자신보다는 그의 아내 투르즈 리히터여사가 큰 활약을 보였는데, 그녀는 이번에 함께 초청된 수상자 부인들의 인화를 적극 유도.

그녀는 또 韓國의 골동품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주발, 향합, 연적 등을 구입해 눈길을 끌었다. 알고보니 韓國은 초행이지만 美國에서 이미 韓國의 골동품을 여러점 구입했었는데, 얼마전 샌프란시스코지진 때 골동품이 깨졌다는 것.

윌터 길버트박사(美國·1980년 화학상)는 과학이 인류의 뉘을 부채질한 요인이 아니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과학은 권위와 조직사회에 위협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실은 사회가 과학을 남용해왔다고 과학의 무혐의론을 폈는데, 이에 반대하는 조셉슨박사와 한때 공방전을 벌이기도.

길버트박사는 美國 대학에서는 교수가 기업일에 소비하는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또 기업을 위하여 하는 연구라 할지라도 그 연구내용은 공개되어야 하고 연구결과는 學術誌에 발표하게 되어 있다며 대학에서의 왕성한 기초과학연구가 미래 과학발전의 튼튼한 하부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來韓수상자들 가운데 유일한 제3세계 출신인 월레 소인카(나이지리아·1986년 문학상)씨는 노벨상 수상자 선정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는 등 그 公正性이 문제시 되고 있다는 記者들의 질문에 『이와같은 상이 아프리카사람들에 의해 제정되었다면 아마 아프리카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상했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은 모습.

그는 인간가치 실업 제3세계 부채 등이 토론 의제로 오를 때마다 저개발국의 이익을 대변해 외로운 투쟁을 벌였는데, 몬탈치니 여사가 자주 이에 동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렇듯 심포지움 참가자들은 1주일의 짧은 방한일정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다. 이번 서울심포지움이 단지 서울德談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이번 심포지움의 구체적 의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필자 나름대로 다음의 두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젊은 英才들이 수상자들을 만나 그들의 육성을 들으며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있다. 浦項工大강당에서 열린 「21세기 비전 노벨상 수상자에게 묻는다」 심포지움과 이튿날 몇개의 공대강의실에서 나누어 열린 학생 및 교수들과의 수상자 좌담회에서 의욕의 눈빛으로 타오르던 우리 동량들을 필자는 지켜 볼 수 있었다.

여기에 참가했던 한 학생은 『제가 직접 배우는 교수님들이나 수상자들의 말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훨씬 확신이 서고 미래에 대한 자신도 생긴다』라고 자신의 소감을 말했다. 이번 심포지움이 우리의 동량들도 충분한 역량과 자질이 있음을 그들 스스로에게 확인시켜 준 기성세대의 훌륭한 선물이었음을 반영하는 얘기다. 이보다 더 큰 수확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동안 같은 돈을 들여 해외인기인이나 불러오는 우리의 풍토속에서 이번 이들의 방한 주선은 과학계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둘째, 來韓 수상자들은 과학인의 자질로서 창의적 실험정신을 이구동성으로 강조했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 우리의 교육현실을 투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데 있다. 수상자들은 뉴우

튼이나 아인슈타인의 중요업적은 모두 20대 초반에 이루어졌다고 상기시키며 무작정 많이 배워서 그 지식에 익숙되는 것보다 가급적 빨리 독립된 분위기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현재 우리의 교육현실에는 개선할 점이 산재해 있다. 고려대 姜周相교수의 지적처럼 우리의 교육은 교육이라기 보다 훈련에 가깝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기에는 교수들의 강의 및 학생부담율이 엄청나게 높으며 대학입시를 위한 과외비는 천문학적 숫자에 이르나 정작 대학에서의 연구기금은 크게 메말라 있는 실정이다.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술개발이 21세기를 살아남는 길이라면 이 사명을 궁극적으로 짊어진 우리의 교육계가 지금이야말로 혁신적인 변혁을 통해 연구중심교육으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수상자들이 이점에 대해 전체교육기관이 힘들다면 몇개의 소수 대학만이라도 이러한 방향 전환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교 운영에 과학자들도 참여시킬 것을 주장한 것은 특히 되새겨 볼만한 것이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움에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수상자들이 우리의 과학계 학자들을 만나 진지한 토의를 할 기회가 적었다는 것이다. 다시 이런 행사가 치루어 진다면 무엇보다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기치않은 소득이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Medical Fellowship 提供 장학생

Beecham 제약회사는, 영국문화원의 협조로, 영국에서 의학분야를 공부하고자 하는 한국인 의사들에게 Fellowship을 제공한다.

영국에서 인정한 고등교육기관의 과정(의

학분야)에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영국문화원에서 정기적으로 주최되는 단기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다.